

철학사

08 플라톤의 윤리학

휘튼 대학의 아서 홈즈 박사 저

그러므로 오늘 오후에는 삼분법적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분법적 영혼이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인데, 플라톤의 철학과는 다소 맞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어디에서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요소요. 제 생각에는 그것들은 세 가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영혼에는 아마도 세 가지 기능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기능 수준, 즉 세 가지 요소는 각각 지성, 정신, 영혼입니다. 번역본에서는 흔히 '영혼'이라고 하지만, 우리말에서 '영혼'은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신학적 맥락에서 '영혼'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비물질적인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독일과 유럽 사상의 맥락에서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문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의 생명이 곧 문화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슷한 건 활기찬 면모, 쾌기입니다.

주도성. 추진력. 그런 의미에서 의지력.

의지 라는 개념을 단순히 선택을 하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기찬'이라는 요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활기찬 말이 어떤 모습인지 알 겁니다. 항상 앞발을 들고 달리려고 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추진력이 강하고, 주도적인 모습이죠.

첫째는 활력 넘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욕구적인 요소입니다. 욕구, 욕망, 소망이죠.

그리고 저는 영혼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 상응하는 활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도 욕망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식욕. 본능적인 욕구. 등등.

기백 넘치는 말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성적인 말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영혼 이라는 단어가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는 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다른 생명체에는 없는 인간만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인간만의 영혼은 바로 이성적인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 가지 수준,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별 짓는 것은 바로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서는 그가 이성적인 영혼을 감각 경험을 하는 감각적인 영혼, 즉 동물과 구별되는 영혼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혼과 육체가 이생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성상,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신체의 각기 다른 부위에 위치시킵니다. 따라서 지성은 당연히 머리 에 위치하고, 기개와 활력은 심장이 흥분과 기대, 에너지로 빠르게 뛰는 가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위장, 장, 내장, 소화기관의 식욕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원시적인 심리학입니다. 18세기에 발전한 삼감각 심리학을 예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성, 의지, 감정은 그들이 영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예견하는 것이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 만큼, 각 요소에 상응하는 적절한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선입니다. 그것은 텔로스, 즉 목표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목적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선이에요. 아시 겠어요? 지성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 즉 텔로스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선, 즉 기개가 있는 사람의 이상은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한 것, 즉 욕구의 올바른 기능은 절제입니다. 또는 자기 통제라고도 하죠. 그런 식으로 그는 윤리를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 세 가지 미덕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네 가지 미덕 중 세 가지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스인들은 우주적 정의라는 개념과 함께 질서 있는 통일성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우주, 즉 정의로운 우주, 우주적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 우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화롭게 질서 잡히고 통일된 도시 국가, 즉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요소들, 즉 영혼이 조화롭게 질서 잡히고 균형을 이룬 인간, 즉 개개인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람이란 이 세 가지 요소가 각자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성, 즉 이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열정적인 사람들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성 없이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고, 이성에 따라 인도받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향 제시가 없는 무한한 에너지는 문제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감정, 열정, 욕망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기개가 넘치는 사람은 지성에 의해 인도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성적으로 방향을 정한 욕구 제어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욕망의 통제. 플라톤의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관심사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인간의 욕망과 욕구, 그리고 이기심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정치 사상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심이 도를 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며, 금융 산업의 문제든 미국의 의료 서비스 분배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굽시였는지, 아니면 존슨이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월요일 밤에 그 사람이 문제의 다섯 가지 요소 모두가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지나친 이기심이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의 분석입니다. 제가 방금 수집한 자료들, 특히 당신이 정리한 파이드로스 개요를 보면 당신이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화국』에서 이런 식으로 영혼을 묘사했지만, 『파이드로스』의 날개 달린 말 신화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 두 마리가 끄는 전차가 있어요. 마부가 방향을 조종하며, 아무런 방해도, 막힘도 없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태양을 향해 하늘 높이 솟아오르죠. 문제는 말 한 마리가 항상 고집을 부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른 말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들의 식욕. 그리고 다른 말은 그 식욕을 제어할 힘이 있죠. 하지만 말이 끄는 마차를 모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몰아본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자, 첫째, 둘째,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연세가 드신 분들이시네요.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모는 데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앞장서는 말, 즉 다른 말들을 통제할 힘이 있는 말에게 선두를 맡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도권을 잡는 말이죠.

마차를 모는 사람은 지성을 상징합니다. 마차를 올바르게 모는 것은 기백 있는 말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백 있는 말은 통제력을 발휘하고, 즉 의욕적인 말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마차가 단순히 떠 있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실수하면 추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추락한다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하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모는 사람의 신화는 인간 영혼의 투쟁, 즉 선을 향한 추구를 묘사하는 그의 방식인 겁니다. 그는 영혼의 삼분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은 단순히 환경적 상황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혼은 자신의 목표, 선, 목적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목적론적이죠. 음, 영혼에 관한 나머지 항목은 두 가지 사랑이라는 문제입니다. 테드라스(Theodras) 의 논의에 이미 암시되어 있지 않나요? 욕망이 저승에 쏠리면 결국 저승으로 가게 된다는 것처럼요.

아기 요람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과 욕망이 더 높은 곳에 있다면, 지성의 인도를 받아 이상적인 형태, 결국에는 선의 형태,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목표를 향해, 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른 사랑. 그가 두 경우 모두에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 즉 욕망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고귀한 욕망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 다른 모든 사랑들이 비릇되고 또한 다른 사랑들이 생겨나는 근원이 되는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기독교 작가들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중에 그의 고백록을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국가론』을 다 읽고 나면 고백록도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영적 삶의 고전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그의 철학적 자서전이자 영적 자서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점은 그가 두 가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는 플라톤 철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어떤 사랑이든 간에, 결국 개인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의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플라톤이 제시한 영혼과 그 순례의 모습을 이해 하려면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이성적 으로 인도되지만 사랑으로 동기 부여된다고 말했죠 .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플라톤의 글에는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에 따르면, 해야 할 일을 알면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플라톤 전체를 놓고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 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을 사랑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영혼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기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 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선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선을 아는 것뿐 아니라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

그리고 여기서 그가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는 것, 즉 가치관을 함양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 교육. '가치'라는 단어는 명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상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가치'라는 단어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다. 무언가를 사랑하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원하고, 갈망한다.

곧 알게 될 겁니다. 플라톤도 그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었죠.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만, 선 을 사랑 해야 합니다 .

둘 다. 물론 마차를 모는 사람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멋대로 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지성 그 자체만이 아니다 .

길들여지지 않은 말에 관해서 말하자면 , 플라톤의 영혼의 삶에 대한 개념은 순전히 객관적이거나 사실적인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있을 겁니다 . 플라톤이 말하는 것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 , 즉 지성입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색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색은 가장 고귀한 종류의 생각이다.

단순히 방정식을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논리적 증명을 해내고, 변증법으로 친구들을 놀려대 보세요.

아니요, 목상은 단순히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꼼꼼이 생각해 보고, 바라보고, 흡수한다.

거닐고, 경이로움에 넋을 잃고 서 있는 것.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아니, 없었던 것 같은데. 제2차 세계 대전 중 아이슬란드 해안 어딘가에 있던 병력 수송선 갑판 위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어느 11월, 우리가 사고를 치지 못하게 하려고 갑판 꼭대기에서 경비를 서게 했어요. 우리가 뭘 경계해야 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그냥 우리가 말썽을 부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병력 수송선의 갑판 꼭대기에서 경비 근무를 섰던 기억이 나요. 개조된 큐나드 여객선이었죠.

한밤중. 별 하나 없는 하늘. 북극의 추위.

배의 상부 구조물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부드럽게 흔들렸다. 배 안팎 어디에도 불빛 하나 없었다. 역시 당신들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냥 거기 서서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눈이 닿는 곳까지 온통 별들뿐이었죠.

배의 상부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 그 순간, 마음은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경외감. 즐거움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 한구석에는 어둠 속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이로움을 느껴보세요. 바로 그것이 플라톤이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가져야 할 태도 말이죠.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치 종교적인 경이로움처럼 들린다고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작가들이 주목한 점입니다. 중세 신비주의 문학의 발전 과정에서 그들은 플라톤적 관조의 관점에서 신에 대한 관조적인 경이로움을 묘사했습니다.

음, 경이로움과 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아시다시피, 지성의 미덕은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적된 정보 같은 의미에서 말이죠.

그것은 지혜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선에 대한 사색적인 기쁨에서 비롯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음... 지혜는 일종의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죠.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훈련된 능력 말입니다.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도덕적 또는 미적 신념에 따라, 도덕적 이거나 미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이로움과 지혜로 가득 찬 마음은 자연스럽게 활기찬 요소를 이끌고 욕구를 제어합니다.

자기 절제된 사고요. 아시겠죠? 음, 테드로스에 대해 또 하나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있다면... 수사학에 대한 길고 지루한 마지막 부분은 뭐죠? 수사학의 온갖 기능에 대한 내용이죠.

솔직히 한동안은 '아니, 저 마지막 부분은 굳이 넣지 말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풀어보는 것 자체가 영혼을 위한 좋은 자기수양 훈련이 될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

있다는 겁니다 . 변증법이 없는 수사학은 욕망 의 도구일 뿐입니다 .

교활함.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논쟁에서 이기고,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6가지 쉬운 방법.

아니오, 수사학이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받으려면 변증법의 작용, 즉 지혜의 함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플라톤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그가 초능력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지점으로 되돌려 놓게 됩니다.

그의 인식론. 우리는 변증법을 통해 이상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피타고라스 학파, 아마도 피타고라스 자신이 '철학' 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해되지요?

잠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방금 플라톤에게 사랑은 에로스, 즉 욕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런데 다른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에로스가 아니라 필레오, 필레아, 명사입니다. 필레오는 일종의 우정 같은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죠.

원해서가 아니라, 너 때문에. 하지만 그 자체로 넌 그걸 좋아해.

그게 바로 우정 이죠. 그리고 철학이란 지혜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혹은 원한다면, 선 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

식욕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익 때문이라기보다는, 지혜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자, 지금까지 의견 있으신가요? 네, 루스. 제가 이해하기로는 플라톤은 영혼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었다고 하던데요. 선을 인식하고 경이로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영혼이 우리 삶에 들어왔는지에 따라 일종의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아니, 어떤 영혼이 당신 삶에 들어왔는지는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육체를 가진 영혼이지, 외계의 영혼이 육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당신이었던 존재 말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영혼의 순환 방식입니다.

영혼의 순환이라는 말, 참 이상한 단어죠? 그 작동 방식은 보상과 처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 착한 사람이 되면 다음 생에서는 철학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순례의 여정에서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봤을 때, 전생에서는 3에서 4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다음 생에서는 다섯 살에서 시작해서 네 살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죠. 둘 다 네 살로 끝났다고 해서 다음 생에서 똑같이 시작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운명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걸 운명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는 맹목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시인이나 그리스 희곡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운명이라는 개념이 맹목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점차 우주적 정의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정의의 개념이지, 맹목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제가 플라톤이 영혼과 그들이 천상 세계에 있을 때 어떤 신과 연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영혼의 타락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도덕적 타락을 의미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육체를 지닌 존재 자체를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자유를 잃게 되죠. 하지만 아니, 이것도 우주적 정의의 일부라고 하더군요. 어디 보자, 라이언.

저는 그가 철학자와 진리에 대한 에로스를 혼합하는 두 가지 다른 용법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은 다소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의 철학에서 둘 다 참된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음, 척도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진리에 대한 에로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이익에 기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때쯤이면, 이기심 보다는 실패에 대한 감수성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에로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덕을 함양하는 것과는 달리, 선을 그 자체로 즐기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 구분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좋은 것과 도구적으로 좋은 것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고, 도구적으로 좋은 것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바람직한 것입니다.

에로스라는 개념은 모든 것을 도구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필리아는 사물을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정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정에 관한, 즉 리스케이션(lysis)의 방식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향연과 대조를 보기 위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향연에서는 두 가지 사랑의 형태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초기 연설들은 모두 저급한 종류의 에로스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연설을 할 때는 아름다움, 지혜 등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연설에서 그는 우정이란 무엇인지, 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연인들의 진정한 기술, 연인들의 진정한 활동을 변증법이라고 말합니다. 변증법,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우정은 지혜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정이다.

서로를 갈망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가 말하는 진정한 우정을 만드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여정에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관해 풍부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개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삶에는 윤리적인 측면이 더 많이 포함됩니다 . 물론 그의 정치 사상도요. 미학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즉 영혼의 향상에 기여합니다.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고, 그 중심이 됩니다 . 육체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혼은 간혀 있고, 엄청난 향상과 해방이 필요합니다.

선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는 영혼의 이상은 선을 닮는 것입니다. 선을 닮는다는 것은 선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후기 저작에서 선의 형상을 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선을 닮는다는 것은 신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기독교 영성의 언어에 깊이 자리 잡은 표현입니다. 중세 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관한 고전이 된 저서를 썼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을 본받는 것이 플라톤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덕목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등 모든 덕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대화록에 나오는 여러 덕목들을 기억하시죠? 덕목이란 무엇일까요 ? 플라톤이 사용한 용어는 '아리테(arité)'인데, 이는 간단히 말해 자질,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자질, 탁월함 .

다시 말해, 덕을 갖춘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철학은 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윤리가 아니라, 올바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윤리이다.

이 윤리는 행위 윤리보다는 덕 윤리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덕은 영혼의 탁월함입니다. 영혼은 그 구성 요소들이 본래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덕을 갖추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 기능은 영혼의 습관적인 성향이 됩니다. 절제심이죠.

용기. 지혜. 또는 다른 미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타인 에 대한 존중 .

등등. 그리고 그의 대화 중 일부에서 그는 여러 덕목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탐구합니다. 이것들은 마치 구슬 한 봉지처럼 그저 뒤죽박죽인 잡동사니일까요? 아니면 덕목들 사이에 어떤 질서 있는 통일성이 있는 것일까요? 아시겠죠.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란 덕목들의 질서 있는 통일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영혼이 이성에게 의해 다스려질 때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쾌락의 역할, 즉 좋은 삶에서 쾌락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떨까요? 플라톤은 적어도 두 편의 대화편, 『고르기아스』와 『포이보스』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고르기아스와 필레보스. 그는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는 생각을 거부하지만, 쾌락을 여전히 좋은 것으로 여긴다. 좋은 것 중 하나로.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선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끊임없이 애쓰는 이기적인 존재가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목표는 쾌락, 즉 헤돈에(hedon-e)입니다. 플라톤은 쾌락주의를 인간에게 있어 선(善)이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고 비판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욕구에만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쾌락은 최고의 선이 아닙니다. 욕구는 인간 영혼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최고의 선이 아닙니다.

쾌락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쾌락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좋은 쾌락이 있고, 나쁜 쾌락이 있다.

한, 쾌락 그 자체가 선일 수는 없습니다. 쾌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어떤 선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도덕 심리학에서는 더 고상하고 풍요로운 쾌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색의 즐거움. 정신적인 삶의 즐거움. 사실 즐거움은 고차원적인 활동의 부산물이다.

좋은 삶을 완성하고 마무리 짓는 활동의 부산물입니다. 케이크 자체가 아니라 케이크 위에 얹는 장식과 같은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인 겁니다.

플라톤은 쾌락의 위치에 대해 본질적으로 전도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현자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던 그것을 삼켰다. 그것은 모두 헛되고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지혜롭게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선에 대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것인지 깨닫는 것이죠.